전북회화

전북회화

2022년 통권 제29호 전북회화회 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9. 2022



표지_ 김준근 **기억여행2020** 54x66cm 토분, 석분, 담채 2020

전북
회화

전북회화

전북회화회전

2022. 12. 06화 - 12. 13화

Opening_2022. 12. 10토 15:00

● 특강 : 21세기의 새로운 '비평적 지역주의'를 향해

누벨백미술관

54966 전북 전주시 홍산북로 29-5. 4F TEL. 063-222-7235

이천이십이년 12월

제29 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회화회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 및 전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또한 전북회화회는 '전북회화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 2023년부터 '전북회화회'는 '한국회화회'로 명칭을 바꾸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전북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 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2020. 12 통권 27호 발행
2021. 8 편집위원회 (회화지 논의)
2021. 10 정미현회원 작업실 방문
2021. 10 회화회 청년 작가 좌담
2021. 11. 24 통권 28호 발행
2021. 11. 30-12. 7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2. 4. 정기모임 및 이호억작가 작업실 방문
2022. 5. 편집위원회의(회화지 논의)
2022. 9. 미술기행(프리즈, 키아프 전시)
2022. 12. 통권 29호 발행
2022. 12. 6-12. 13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CONTENTS

2022 오늘의 작가

04 권기철
05 김준근
06 김지연 (가 득)
07 박두리
08 박방영
09 박성수
10 박종갑
11 박지예
12 손다운
13 손종민
14 송태정
15 송화정
16 오송규
17 유예빈
18 윤대라
19 이명자
20 이승훈
21 이지희
22 이철량
23 이호억
24 임진성
25 임 효
26 임희성
27 정미현
28 진희란
29 최지우

30 2022 전시리뷰

31 박종갑 초대展
32 정미현 展
33 손다운 개인展
34 진희란 개인展
35 권기철 개인展
36 오송규 초대展
37 피에타-윤대라 개인展
38 박지예 개인展
39 이호억 개인展
40 최지우 개인展
41 GS건설 갤러리시선2인 공모 기획展
담양아트위크2022
42 Art Fair Asia Fukuoka 2022
제주비엔날레 2022
43 ART BUSAN
박방영 화백 한국미술 전시
44 2022 군산아트쇼
동행, 다섯 개의 별展

45 특별기고

46 프리즈, 키아프 공동 개최…
49 같이해서 더 가치있는 미술 기행
50 '아트이슈 프로젝트' 전시장을 찾아서
52 21세기의 새로운 '비평적 지역주의'를 향해
54 코리안프리미티브(원시예술) - 박방영(朴芳永)

권 기 철 Kwon Ki-chul



Untitled 212x155cm 한지위에 먹 2022

1. 나의 수묵작업은 몸으로 그리는 몸 그림이고 작품은 선이 변주되는 추상이다. 대상을 이미지로 읽고 몸의 제스쳐로 변환시킨 것이 그것이고, 오직 직관과 몸짓만 남도록 한 배설 또한 그것이다. 서체에서 출발한 타이포가 드리핑 된 의성어'어이쿠'란 표제는 시간이 공간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작업 즉 순간과 행위를 의미한다.
2. .'어이쿠'는 한일자 (一) 선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상징이 되고 때로는 여러 다양함으로 변주된다. 일테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一卽多는 多卽一'(일즉다 다즉일)의 함의를 가진다.
3. 작위와 무작위가 엄밀히 구획되는 작업에서 도구는 마치 몸과 같아 붓과 물감은 이와 다르지 않다. 삼투압 작용의 한지는 발묵과 번짐, 흘러내리기, 튀기기 등의 팽팽한 긴장의 순간이 최대치로 구현되며 그 위에 얹힌 형상들의 포치는 밀고 당기는 내밀한 에너지로 균형 분배된다.
4. 몸과 마음이 온전히 무아지경으로 몰입되는 지점, 거기에는 몸의 관성이 작동하는 행위는 남고 생각이 분화하는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해서 나의 그림 나의 작품은 혹독하게 체득되고 육화된 몸의 행위만 남는다. 곧 나의 행위와 나의 그림은 온전한 동의어가 된다.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영남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개인전 54회(1993~2022) 2021. 인천 아시아 아트쇼 (송도컨벤시아, 인천) 포용적 예술-this-able (대구예술발전소) 2020. 글리치 앤 비주얼아트, 펜데믹 (대구예술발전소), 2019. 공전하는 사유, 마주침의 순간들 (경북대미술관),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외, 작품소장-국립 현대미술관 (과천), 대구 미술관, 이중섭 미술관 (제주), 인당 미술관 (대구),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정부종합청사(서울),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울), 국립국어원 (서울), 동양 엘리베이터 (서울), 포스코 (포항), 대구문화예술회관, 현대중공업 (울산) M.P_ 010-2521-1431 E-mail_ tokipul7@daum.net

김준근 KIM Jun-keun



기억여행2020 54x66cm 토분, 석분, 담채 2020

유년시절의 감성들이 프레스코 기법을 통하여 화면에 표현된다. 주재료인 석분과 토분을 활용한 재료적 물성과, 감성적 경험들이 화면에 시를 쓰듯 기록된다.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된 유년의 감성들은 화면에 상감되고 스크레칭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기억의 편린(片隣)들이 유년의 일기장이 되고 기억여행의 표현 형식이 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25회(metalos/파리,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인사아트센타/서울),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 (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바로셀로나국제작품초대전(IED대학/스페인), 현)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M.P_ 010-2426-2632 E-mail_ nature@cbnu.ac.kr

김지연 (가 득) Kim Ji-yeon (Gadeuk)



Day5 60×60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1

작업은 묵상에서 출발한다. 한 사람이나 특정 현상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영향과 외부 세계에 미치는 외적 영향을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느린 형태의 예술작품과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그림과 그림이지만 그림이 아닌 것, 돌과 돌이지만 돌이 아닌 것, 물질과 제조되어진 물체의 조합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곳과 것을 시각화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이나 자연물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다. 작품 속 자연물들은 한 인간 또는 군집을 의인화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를 상징한다. 돌과 산수 그리고 파장을 연상케 하는 곡선을 통해 매일 접하는 텍스트와 사운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특정 인물이 남긴 인상을 캔버스에 구현한다.

2022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박사 수료, 서울, 대한민국 (박사) , 2020 브라이튼 대학원 순수미술전공 졸업, 브라이튼, 영국 (석사),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중퇴, 서울, 대한민국 (석사), 2013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서울, 대한민국 (학사)
개인전-2020 메마른 영혼과 피폐한 마음에 다시 사랑이 시작되기를, 갤러리 아미디, 서울, 2018 삶의 파도,공간:일리, 서울, 그룹전- 2022 사이세상,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21 다시걷다, 혜화아트센터, 서울 , 2021 한 여름밤의 꿈, 5컬쳐레옴, 서울, 2021 쉼, 갤러리아미디, 서울 , 2021 기저효과, 갤러리한, 일산
E-mail: gadeuk1@naver.com

박두리 Park D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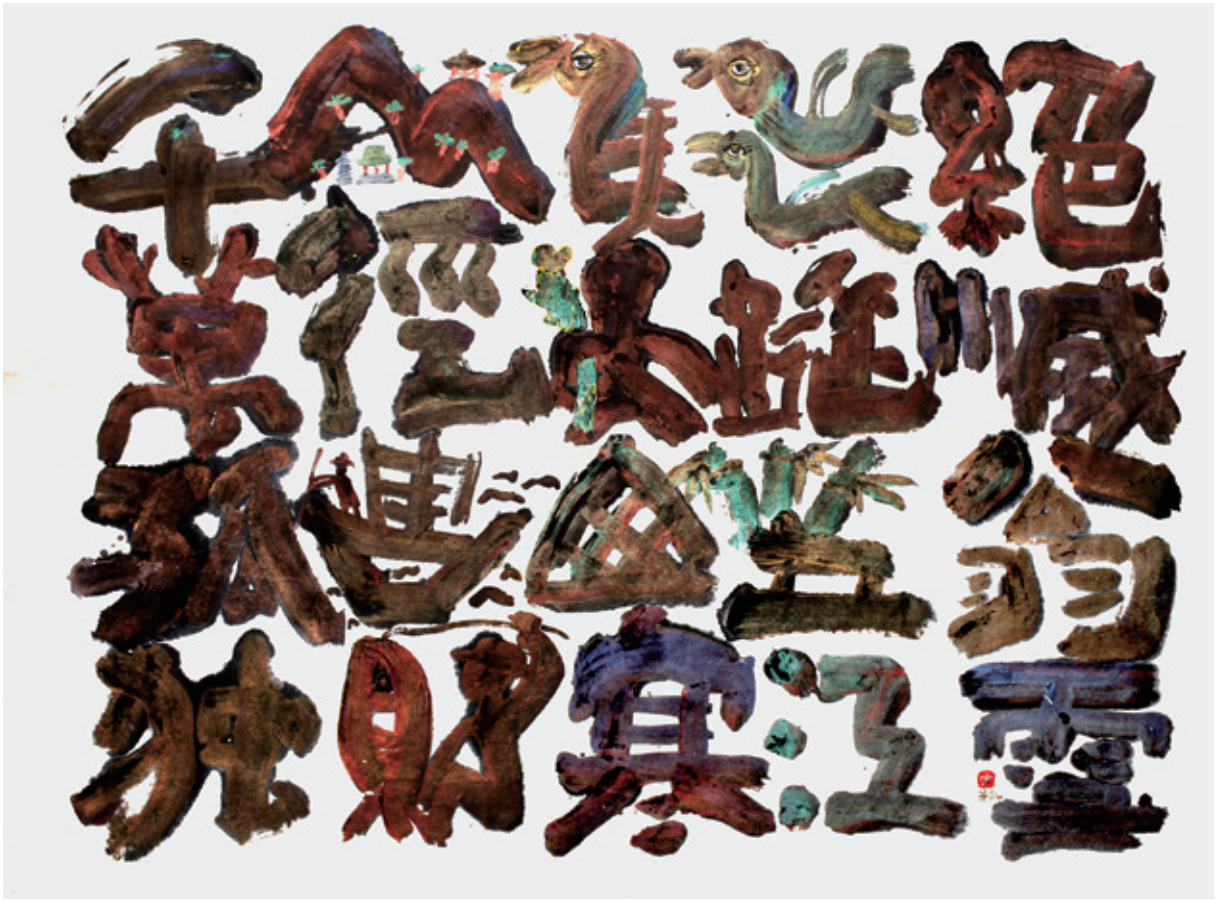


두 개의 풍경과 여덟 개의 창 224.2x486.6cm Oil on canvas 2022

<두 개의 풍경과 여덟 개의 창>은 '조하리의 창' 이론을 기반으로 요즘 취미를 붙인 해루질을 다니며 목격한 사건들을 풍경으로 풀어낸 작업이다. 조하리의 창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인관 관계론 중 하나로 나는 두 개의 각기 다른 풍경(바다 앞 언덕을 밑에서 본 풍경과 넘어서서 바다를 본 풍경)을 마치 하나의 풍경처럼 화면에 배치하고, '조하리의 창' 관점으로 두 개의 풍경을 창을 통해 바라본다. 내부에서 바라본 외부의 풍경은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바라보고 있는 주체가 풍경에 속해 있는 듯 비춰지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가끔 풍경은 많은 것을 투사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0 긍정적 뜨내기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9 Fragile (경성방직 프로젝트, 서울), 2018 경계의 모양-집합A, 집합B (서신갤러리, 아트스페이스 O, 전주, 서울), 2017 CONTE (갤러리 밈, 서울), 주요 단체전, 2022 달성 현대미술제 특별전 (달천예술창작공간, 대구), 2021 예술과 매체: 영감의 시작 (팔복예술공장, 전주), 2021 편린(片鱗), 없어진 존재들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0 #생존신고 (수창청춘맨숀, 대구), 2020 유니온 아트페어 (아츠 스테이 문래, 서울), 2019 약한 우물을 폭파하다 (관두미술관 KdMoFA, 타이베이, 대만), 2019 북경發 전라특급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8 19회 신세계 미술제 선정작가전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8 팔복예술공장 개관특별전 <Transform>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6 면상; 장면과 영상사이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레지던시, 2022 달천예술창작공간 2기 입주작가 (달성문화재단, 대구), 2020 경남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산청) 외, M.P_ 010-9253-2483 E-mail_ duri6560@hanmail.net

박방영 Bak Bang-young



강설(江雪) 135x170cm 장지위에 혼합재료 2022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들은 내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 진 것이다. 옛 글 중에 觀物之外物(관물지외물)은 내가 본다는 것은 내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DNA의 활동성,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들이 보는 것과 조응하면서 자신을 기억<Remembering. Re(다시) -Member(조직하다)>해 내는 것이다. 다시 조직해가며 자기 찾기를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길에서 인연, 만남, 체험했던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이다.

이걸 기반으로 자기 찾기 방법을 터득한다.

나는 붓의 필획으로 나를 찾기 하는 중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다 각자의 삶의 길이다.

홍익대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졸업,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 수료,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서양화전공 교수 역임, 개인전- 2022 '차 마시는 호랑이' (마로다연 갤러리, 광양), 2021 '박방영'전 (갤러리 담, 서울), 2019 '박방영의 천연의 획' (아리수갤러리, 서울), 2019 '박방영의 획' (우진문화 갤러리, 전주), 2018 '봄이 오다' (서담재 갤러리, 인천), 2018 박방영의원시성 '유' (면천읍성안그미술관, 당진), 외, 작품소장-OECD 프랑스 파리 사무국, 전주팔복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인천문화재단, 건축물장식 설치 (제목: 고구려 여행)우수영마을 부조 작품 설치 (제목: 1.거북선과 강강수월래 2.우수영마을이야기)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경기도미술관경기문화재단청주박물관— 국립극장 두바이대사관, 제주현대미술관, 동아제약연구소, 반계유형원유적지, 인천의료원, 행촌문화재단 , 미황사 등

박성수 Park Sung-soo



무제 90x90cm 판넬에 닥나무 2022

촉각을 통한 시각 실험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2021 공허, PlanC, 전주 2021 전생연구, 서신갤러리 초대전, 전주, 2019 나를 보는 나를 보는 나를, 루벨백미술관, 전주, 2016 On-Line, Gallery d'Arte, 뉴욕, 미국, 2016 전북 청년 선정작가,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전주, 2015 전생연구-우리, 언제, 얼굴, 보지, ?. 인디아트홀 공, 서울 외 11회, 단체전-2022 한국화 새물결,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광주분관, 겹과 결의 미학, 전남대학교 용지관, 광주, 서고정, PlanC, 외 전주, 레지던시-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경기창작센터(2014~201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작품 소장-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 / 경기도미술관/ LIG아트스페이스 / 우진문화재단 / 상하이 민생은행 / 서울 한솔 병원 / 서신갤러리 / 전북도립미술관
M.P_ 010-9992-3661 E-mail_ parksungsoo80@gmail.com

박종갑 Park Jong-gab



자경(自敬) Ø10cm 접시에 수묵 2022

平中見奇

靜中見動

평온한 가운데 기이함을 추구하고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것을 구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1992-2022 국내, 외 17회, 2022 '회류(回流)' 겸재 맥 초청, 겸재정선미술관 / 서울, 2017 '남도.바람.돌' 월전문화재단 선정작가, 한벽원미술관 / 서울, 2013 ARTIST FROM KOREA 초청, 카스트시립미술관 / 독일, 2011 '검은 숲 - 열두번째 날, 갤러리 웅 / 서울 , 2009 '성역(聖域) - 근원의 음성' 갤러리 아미 / 서울, 단체전-1987-2022 국내. 외 기획전에 260 여회 참여, 2022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와동분교 / 강원도 2020 필묵지간_한글 담은 서화展, 駐)홍콩한국문화원 / 홍콩, 2019 상하이종이비엔날레, 奉贤博物馆 / 상해 ,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 목포문화예술회관 / 목포, 현)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소장, 동서미술학회 부회장 /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 한국미술협회 이사 /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 , 홍익대학교 동문회 부회장 / 완주문화재단 자문위원 M.P_010-3793-2689 E-mail_ namu42@khu.ac.kr

박지예 Park Ji-ye



옆집여인 (제주도)

옆집여인은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년여성들이며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아내이며 또한 엄마이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동료들이기도 하다.

나는 중년여성들의 심상을 말하고자 한다.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그러나 본인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되풀이되는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인물의 이러한 감정표출은 모필과 종이가 만나 우연적인 붓의 성질을 이용하여 몽환적인 형상으로 조형적 변화를 의식하며 인물과 화면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뭇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서 고귀함을 발견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는 곧 본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전북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박사(졸), 원광대.대학원졸(미술대학 한국화전공)
개인전10회, 그룹전다수
경력: 전)근현대사미술관 담다(부관장), 국립전주박물관 한국화교실 강사 ,전북대박물관 전문연구원,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대, 충북대, 원광대강사
M.P_ artcelsi.om/parkjiye E-mail_ pjy7822@hanmail.net

손다운 Son Da-un



당신의 빈자리 72.7x72.7cm 종이에 수묵 담채 2022

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한 공간을 자연에서 찾은 것이다. 자연은 이러한 나를 위해 비어 있고, 그 비워진 자연 속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모두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체이며, 이 자연은 변형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국립 전북대학교 미술학부 졸업, 2021~ 국립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과정 중, 개인전-2022 예술공간 결 기획 초대전 '손다운 개인전 [빈자리]' / 예술공간 결 / 전주 1st solo exhibition 'The rest of a fairy' / 누벨백 미술관/ 전주, 단체전- 2022 다시 돌아온 봄 / 신공간 갤러리 / 서울, 호랑이 그림展 / 연석산미술관 / 완주, 2021 공존·공생 그리고… / 팔목예술공장 / 전주, 우리동네 인물들 / 동문길 60 / 전주, 청목신예작가초대전 / 청목미술관 / 전주, '젊은 고뇌, 서로를 잇다' 누벨백 미술관 특별전 / 누벨백 미술관/ 전주, 제30회 신예작가초대전 / 우진문화공간 / 전주, 'FANTASY' 2인전/ 누벨백 미술관/ 전주, 2020 , 'Sweet After Bitter'/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 '?!.'/ 길 위에 갤러리 레드박스 / 전주, 2018 '팔방미인'/ 덕진갤러리/ 전주 , 소장-청목 미술관 / 전주
M.P_ 010-3063-5878 E-mail_ ekdnsson20@naver.com

손종민 Son Jong-min



Portrait 91x73cm 종이 수묵 2021년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 두 가지 실체를 발견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하면서 자신과 외부의 각기 상이한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존재하는가 그 본질을 찾고자 오랜 시간동안 고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갈망하면서 깨닫는 현재의 상태를 작품 속에 실현시키고 싶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배회하는 고통스런 흔적을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산동의대학 한국화 졸업, 個人展-2021 손종민 "portraits" 展- 부산 화인 갤러리, 2019 손종민"사람(people)"먹그림 展- 부산 화인 갤러리, 2019 손종민 "사람"먹그림 展-서울 인사아트센터 , 2017 손종민 "사람들" 먹그림 展 - 부산 화인갤러리, 2017 손종민 개인 展 - 남해 바람흔적 미술관, 2016 손종민 먹그림 展 - 부산 해운아트 갤러리, 2000 도시 그리고 선 展 - 부산 일광 작업실, 1999 자연을 말하다 展 - 울산역(구), 그룹展-2022 COVID-19 치유를 위한 부산현대작가협회 국제교류전등,
M.P_ 010-7486-1025 E-mail_ yasul2000@hanmail.net

송태정 Song Tae-jeong



살짝~쿵 40x50cm 한지에 채색 2022

살랑살랑 날개짓하며
비비추 유혹에
살짝-쿵
답해주는 노랑빛 나비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살짝-쿵 산책길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주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아트페어전, 2017-19 초대전3회 (전북지방경찰청, 한전아트센터), 2017 개인전2회 (교동아트센터), 2015 개인전1회 (미국 스캇데일 겔러리, 썬 겔러리)
2012, 10, 07 아트페어전 3회 (한국 소리문화전당), 단체전, 2004-2022 건지전, 전북회화회 외 80여회, 현)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 회원, 전북 회화회원, 버질아메리카 회원, 전북 전주시 전주서원초등학교 재직, E-mail_ dduknemi@hanmail.net

송화정 Song Hwa-jeong



마음에 스며들다 96x69cm 종이에 수묵 2022

한지를 펼치고
먹빛에 마음을 가득 품어
채웠다가 비우기를 반복한다.

먹물이 스며드는 순간들의 물자국
물빛 가득한 상상과 함께
바랜듯한 먹빛의 담백함에 스며들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2022. 다시 돌아온 봄 Group전, 서울 시공간화랑 외 단체전 다수 참여
Email_ ilikegogh@hanmail.net

오송규 Oh Song-gyu



심상-소요하다 V 61x72cm 화선지에 수묵 2022

수묵의 검고 깊은 먹색들과 부드러운 중,담묵의 운용,그리고 여백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대비와 조화는 화면에 나타나는 수묵의 번짐과 스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진 밤하늘의 공간과 어둠속에 단순한 형으로 나타나는 숲과 별빛에 빛나는 강물의 표정, 구부러진 길 들을 여백으로 처리함으로써 화면에 채움과 비움의 조형의 공간을 이루어내게 된다.세상은 가시적인 부분과 가시적이지 않는부분으로 구분된다.어둠은 가시를 비가시로 바꾼다.나는 이런 바가시적인 상황이 좋다 이런 비가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나는 저 숲과 강에 살고있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수많은 생명체을 상상하면 즐겁다.그래서 만물이 드러나는 낮보다 모든게 덮어지는 밤이 좋다. 달과 별빛이 빛나는 저녁 나절 숲속으로 나있는 길은 걸으며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속에 새가 되어 세상을 소요하는 꿈을 꾼다. 소요는 아무런 생각없이 어슬렁 거린다는 뜻으로 내가 자유롭다는 의식마저 없는 상태, 시간이 멈춘것 같은 절대자유를 의미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32회, 단체전-2022 제27회베세토미술제베이징 전시(북경민족문화궁전/중국), 청주미술협회 회원전(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청주), 동서미술문화학회 회원전 이미지의 경계 시대와일상전(한벽원미술관/서울), 2019 북경비엔날레, 2019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2018 뭄바이 비엔날레(뭄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M.P_ 010-3751-2185 E-mail_ sunve@hanmail.net

유예빈 Yu Ye-bin



안식 110x70cm 한지에 수묵

나의 작업은 안식을 위함 탐구 과정이다.

갈등과 갈증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작업을 통해 작은 안식을 찾고 싶었다.

형태의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의 감각에 집중하려 했고,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고요하면서도 미묘한 역동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중
2022. 02 다시 돌아온 봄 / 신공간갤러리, 2020. 12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 2019. 06 여유,먹빛을 보다 / 누벨백미술관, 2019. 03 보이는 감각 / 익산예술의전당

윤대라 Yoon De-ra



도깨비가 온다 185x90cm 전주한지에 수간채색 2022

도깨비가 온다
총총
도깨비가 온다
퐁퐁
도깨비가 온다
씽씽
도깨비가 온다
쿵쿵

쿵쿵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아홉 번의 개인전과 이백여 회의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4년 완주로 이주한 후 도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언빌리버블 스펙타클 버라이어티한 시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얻은 영감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명자 lee Myung-ja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60.5x93cm

어제와 같은 듯 다른 오늘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고, 창밖의 나무가 옷을 갈아 입고 재잘대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달라진다.

제주의 바다,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편이 나의 얼굴을 스친다. 제주의 바다는 참 사납다. 이것이 제주의 바다를 더 푸르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밀려드는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이를 화폭에 담아 본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공모전 및 단체전 75여회 출품, 아트페어2회
현)전주솔내고등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회원, 전북판화가협회 회원
M.P_ 010-8004-5895

이승훈 LEE Seung-hoon



가을날 계곡1 34x69cm 지본채묵 2022

낙엽이 되어

화려함을 떨구고 의기소침하지 않다.

단풍이 속내까지 드러내며 일몰과 함께 발아래로 뒹굴지만, 이 순간을 기억으로 물려준다.

어느 활극보다 심한 목숨을 향해 치닫는 속세라지만 잠시 하루 곁에 찾아온 낙엽이 되어 스스로 가는 길에서 뒤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3회, 전북나우아트전, 2022 군산아트쇼
미술문화칼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외1 출판
M.P_ 010-4115-0577 E-mail_ misege@hanmail.net

이지희 LEE Ji-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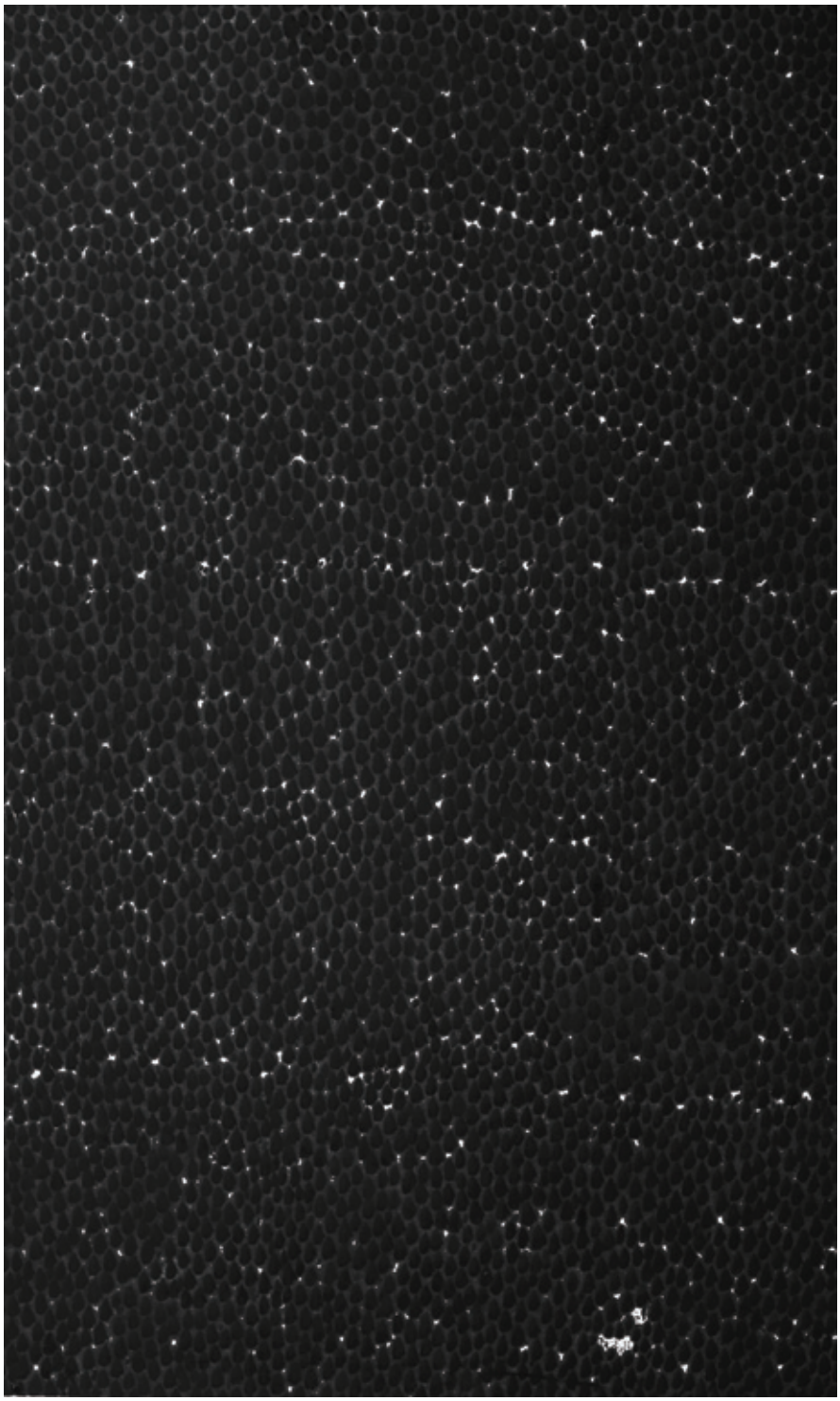


환영으로의 초대 114x147cm 장지에 비단 한지 수묵 콜라주 2021

"나의 작업은 첫 구상부터 완성되기까지 배출되지 못했던 고립된 기억들이
내면에 반추(反芻)와 왜곡으로 인해 신비의 공간인 '내면의 섬'으로 표상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석사,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중국화 학사
개인전 2020 Beauting Grace 이지희개인전 (광화문 교보생명빌딩15층, 서울), 2020 기억을 붙이다展 (아트커뮤니케이션 완산가, 완주문화재단), 2019 <煥, 希: 환희> 도스 기획 공모전 (갤러리 도스, 서울), 2018 <All the flowing things> 기획 공모전 (에이원갤러리, 서울), 2017 <긴 여름> 너트프라이즈 선정작가전 (갤러리너트, 서울), 2016 녹파:綠波 - LEE JIHEE exhibition (경희대학교 미술관 KUMA, 서울), 2014 1st exhibition <Harmony> (갤러리 우림, 서울), 그외 단체전 70여회
작품소장/레지던시 및 프로젝트 2020 인천미술은행 소장 (인천문화재단), 2020 완주문화재단 레지던시, 2020 완주문화재단 예술농부 프로젝트 E-mail_ jjsok6459@naver.com

이철량 LEE Cheol-ryang



Another nature 87x52cm Muk on paper 2022

수묵신작로(광주시립미술관). 2021년 개인전(아트파크).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2년 개인전(아트이슈), 오늘의 수묵(최북미술관), 한국화100년 특별전(울산문화예술회관. 2020), 수묵정신 (전북도립미술관 2019),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아트리에 스토리전(한가람미술전2017),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2015), HERE NAW(포항시립미술관 2015),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센터 2011), 한국화 1953-2007년(서울시립미술관 2007),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2003),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1986)

이호억 Lee H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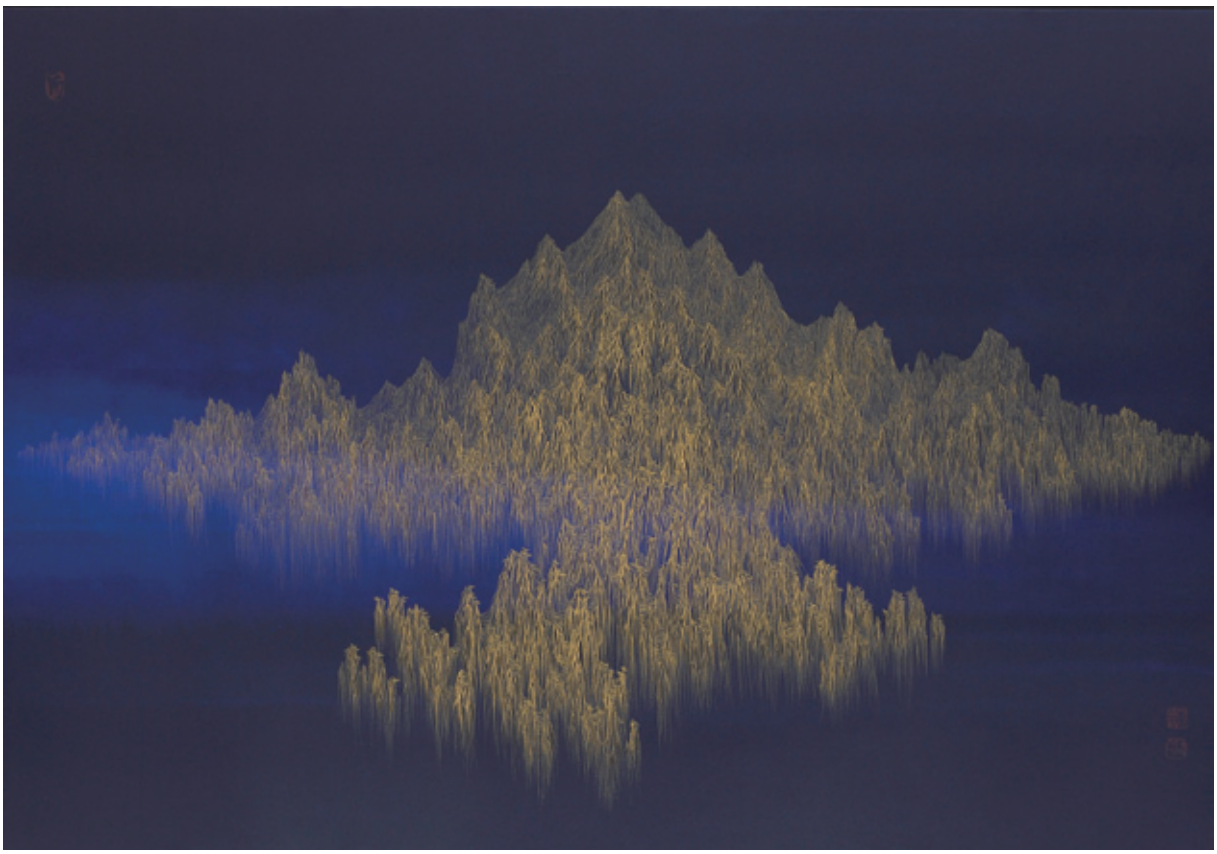


氾濫庭園-錦江無盡 3x30m(입체) 천에 묵필 2022 **氾濫庭園-날마다 커지는 집** 150x210cm(4점) 장지에 묵필 2022

소년은 적막이 감도는 선산의 숲에서 온 밤을 보낸다. 동틀 무렵,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소년의 자의식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소년을 지키고 소년을 어른으로 만든 것은, 오직 그의 이상(理想)이었다.

중앙대학교에서 한국화와 예술학을 전공했으며, 자연에서 찾은 이미지로 이상을 비춰낸다. '범람정원氾濫庭園'(갤러리조선2022), '무진無盡'(영은미술관2022), 'Glowing Face'(갤러리조선2018)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OCI미술관과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https://www.instagram.com/wellshoyi36 / wellshoyi36@hanmail.net / 010-9704-7732

임진성 Yim Jin-seong



부유하는 몽유금강 50x72.4cm 한지에 수묵채색, 니금 2021

유토피아 꿈을 통한 이상 세계로의 유희(遊戱)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만의 안식을 위해 각자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그것이 현실이 아닐지라도 유토피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세계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개념과 사상,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듯이, 과거 선조의 화가들은 산수화를 통해 도원경을 구현 하였다. 이렇듯 산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이상적인 세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인 것이다.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몽유금강> 시리즈는 단순한 재현의 산수가 아닌, 정신과 이상의 경계에서 새로운 이상경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곳곳의 계곡은 작가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수직으로 내려진 금빛의 산봉우리는 푸른빛을 머금고 공중에 부유하듯 떠 있다. 이로써 작가가 표현하는 금강산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산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금강산의 현실적 감각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영원할 것 같은 몽유금강은 작가에게 안식이며,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同대학원 석사, 박사졸업, 개인전-한국,중국,캐나다등 국내외에서 29회, 단체전-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회관)한국근현대산수화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현대한국화 '포지션전'(강릉시립미술관, 강릉).300여회, 수상경력-유나이티드문화재단 작가상(유나이티드문화재단), 주요경력-경희대학교 겸임교수역임, 단원미술제, 홍제미술제, 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역임, 교과서 작품수록-교학사2012 <고등학교 미술창작>56p. 두산동아2014 <중학교 미술>83p, 작품소장-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star cruse(홍콩), 서울아산병원, 수원시립미술관, ,신성엔지니어링, 외교부장관공관, 이화공영, 전북도립미술관. 충북대학병원, 하얏트리젠시(중국) 기타다수
M.P_ 010-3727-5994 E-mail_ yjs5994@hanmail.net

임 효 Rim, hyo



봄 내림 122.5x65cm 수제한지+수묵+옻칠 2018

기도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다.
소중한 꿈,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람들은 그것을 염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염원은 누구나 간절하기에 깊고, 진심이기에 진실되다.
이 크고 작은 마음들은 깊고 진실되어 맑으니(淸) 어찌 청(靑)빛이 아니랴?
그 모습이 마치 강과도 같고, 바다와도 같고, 우주와도 같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흐르는 청(靑)빛은 그런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그저 샘물 마냥 고요하고 잔잔하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 사람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 닿을 때가 있다.
간절한 누군가에겐 그 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
지금, 푸른 은하수와 같은 기도의 샘물에 누군가의 소망 한 조각이
연꽃처럼 피어난다.
바라왔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황홀하리라.
진실하게 노력한 누구에게나 그런 황홀경(恍惚境)은 언젠가 찾아올 터…

그림은 오늘도 모두의 '염원'을 담고 그렇게 '영원'히 흐르고 흐른다.

개인전 27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국제전-바젤,상하이,이스탄블,파리,피아,쮸리히,한국아트페어 등 참가,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주요 콜렉션-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 미술관, 기당 미술관, 서울 삼성 의료원,
M.P_ 010-5282-6504 E-mail_ rh6504@naver.com www.rimhyo.co.kr

임희성 Yim Hee-seong



우연한풍경-Flower15 72.7x72.7cm 엠보아크릴보드에 아크릴물감 2022

-우연한 풍경-

요즘 나는 우연히 발견되는 이미지와 풍경에 관심 있으며 특히, 조형적으로 그럴듯한 풍경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던 중 평범한 일상에서 색종이를 가지고 놀던 중 커팅 된 색 조각들이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흩어져 있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색감이나 형태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상상을 자극 할 형상들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상을 옮기고 다시 흐트러 보기도 하면서 재조합 하여 나만의 재료와 기법들로 화면을 구성한다.

이렇게 계획이든, 우연이든 겹겹이 만들어지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난다.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7회, 단체전 40여회, 수상 및 지원-2020 청년작가 전시 지원금 선정,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선정, 교동미술관/ 2018 신진작가 전시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2013 송파 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송파구청 / 2012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작품소장-전북도립미술관, 교동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반도상사(주), 암웨이, 인영재단, 개인소장50여점

정미현 Jeong Mee-hyun



Natures message 116.8x72.7cm 천에 수묵 2022

자연은 무한한 신뢰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자연의 신성한 존엄과 위엄을 배운다.
자연은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한다.
자연에 깃들린 창조의 지혜를 느껴본다.
자연과 수묵이 조우하며 그림 속에 깃든다.

개인전 8회, 현) 한국회화회, 건지전 회원 E-mail_ hyun3560@hanmail.net

진희란 Jin Hee-lan



주산지 67x76.5cm 순지에 수묵담채 2022

'산로山路'는 여정에서 본 길이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눈을 감고 떠올린다.

잔잔하게 남은 여정의 기억은 길을 따라 심산心山을 만들고 아련함이 가득찬다. 그 아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안개 속 빛처럼 희미함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산로를 따라 국내의 산천을 산행하며 느낀 자연의 변천과 순리,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간 사람의 흔적과 세월을, 산수(심산)의 모습으로 빚어내어 다시금 이야기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수료
개인전 총 9회-2020 <두류담경>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단체·기획전-2021 <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 : 신구운몽 新九雲夢>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20 <감각기억 Sensory Memory> 한원미술관. 서울, 2019 <2019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展-내일의 작가>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8 <한국의 아름다움> 외교부 상황실. 서울(외교부장관상 수상),n 2018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광주 외 다수

최지우 Choi Ji-woo



완산칠봉의 에덴2 90.9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에덴의 발견(Discovery of Eden)

'최지우' 0살-26살까지 '나'의 삶의 기록
보물 찾기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한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바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찾아갑니다
에덴동산 지도처럼
행복은 보물과 같이 존재합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일상 속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국립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사
제2회 개인전- 에덴의 발견 (W미술관/익산), 제1회 초대 개인전-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누벨백 미술관/전주), 아트페어 5회 단체전 19회
E-mail : jwc1100@naver.com Instagram : artist_ji_woo



2022 전시 리뷰

31 박종갑 초대展
32 정미현 展
33 손다운 개인展
34 진희란 개인展
35 권기철 개인展
36 오송규 초대展
37 피에타-윤대라 개인展
38 박지예 개인展
39 이호억 개인展
40 최지우 개인展
41 GS건설 갤러리시선2인 공모 기획展
담양아트위크2022
42 Art Fair Asia Fukuoka 2022
제주비엔날레 2022
43 ART BUSAN
박방영 화백 한국미술 전시
44 2022 군산아트쇼
동행, 다섯 개의 별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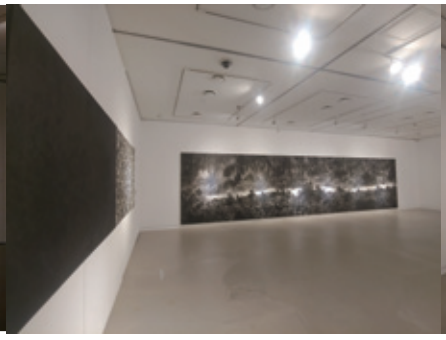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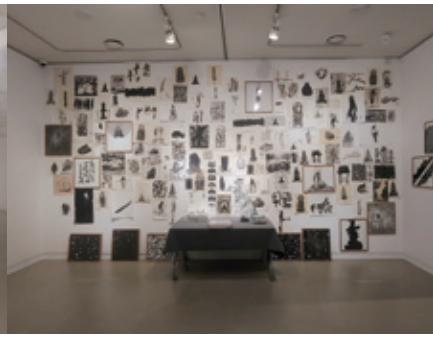
작가와의 대화 영상

회류(回流)
겸재의 맥 _ 박종갑 초대展

일정: 2022. 01. 06 - 03. 01
장소: 겸재정선미술관 전관
주최·주관: 서울강서문화원, 겸재정선미술관
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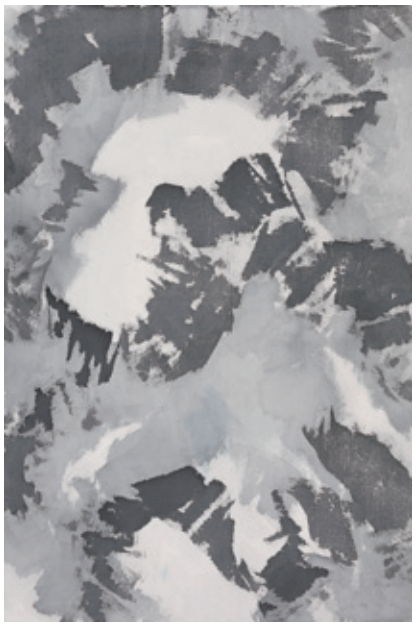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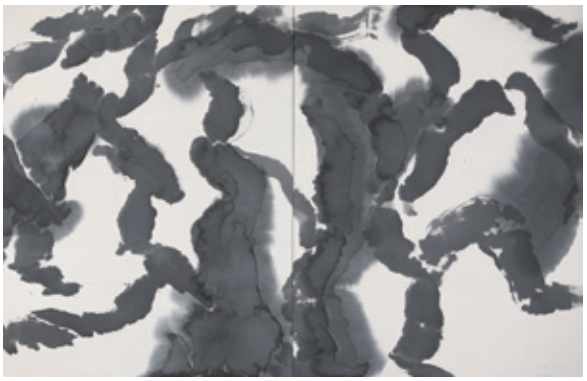




이번 박종갑 작가 전시 타이틀인『회류回流』는 돌리다 '회回'자와 흐를 '류流' 자가 합쳐진 것으로, 현재 팬데믹 상황에 갇힌 인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돌아보고 인류의 나아갈 길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연에 대한 내밀한 탐구와 사유思惟를 통해 자기발견에 이르고자 하였으며, 이를 확장시켜 이번『회류回流』전시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보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들음을 추구하며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사유의 장을 그만의 회화적 기조방식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종갑 작가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잊지 않고, 겸재가 그랬듯 이를 자신의 작품세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전통에서 현대를 새롭게 창출해내며 겸재 화혼의 맥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가가 던진 화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겸재정선미술관

현재를 사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팬데믹 상황에 갇히고 일상의 폐쇄로 인해 지극히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시명 '회류(回流)'는 돌리다 회(回)자와 흐를 류(流) 자가 합쳐진 글자로 근래에 인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돌아보고 인류의 나아갈 길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날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문화가 타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적 근원의 의미들을 되새겨 본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음을 보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들음을 추구하며 정중동(靜中動), 무위행(無爲行)의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사유의 장을 열어 보이려 했다. ■ 박종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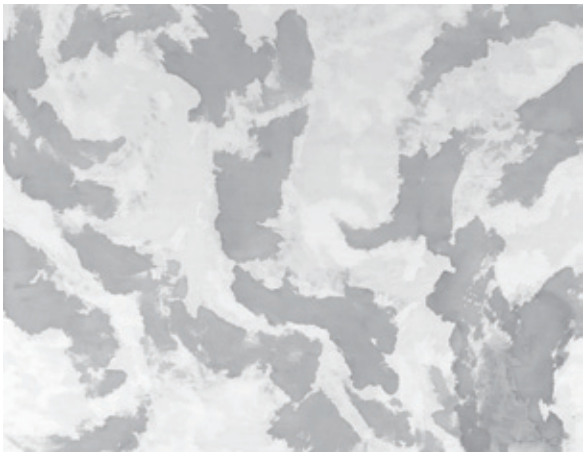
정미현 展

수묵의 은유 - metaphor of nature

일정: 2022. 05. 17-06. 04

장소: 누벨백미술관





자연은 생명의 지혜와 존엄한 존재의 품격을 가르쳐 주는 큰 스승이 되어준다. 하늘과 바람, 강과 바다, 산과 숲, 대지의 생명이 낮과 밤사이를 오가며 서로를 보듬어 키운다. 모두가 상생하며 조화로운 연주를 시작한다. 지그시 눈을 감고 긴 호흡으로 마주한다. 새로운 변주곡으로 춤을 추며 날아든 새의 환영에 눈을 뜬다. 찰나의 순간들이 작업의 영감과 모티브가 되어준다.

수묵의 작업을 통해 자연의 포용을 배운다. 수묵은 한없이 존엄한 자연의 지혜처럼 넓고 깊다. 먹의 농묵은 세상을 다 덮어버릴 듯이 기세가 강렬하고 온전한 자유를 외치는 듯하다. 담묵은 세상이 처음 창조된 느낌처럼 맑고 그윽하며 하염없이 깊고 깊다. 작업을 통해 맑고 은은한 온유의 먹빛이 드리워지는 자연의 무한함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생동하는 숨결의 이야기를 덧입혀 풀어내는 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작업은 천이라는 재료의 물성에 水墨이 지닌 결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며 주제의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墨과 水 그리고 천의 물성이 만나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의 경계에서 어우러지는 변화는 조율과 교감을 배우게 한다. 작업의 과정에서 은은하고 깊게 천착 되어가는 감정을 선염과 발묵의 표현으로 들여다보았다. 수묵의 빛은 여백을 통해 호흡한다. 생동하되 넘치지 않도록 붓의 춤사위를 오르내린다. 수묵을 통한 자연의 은유를 풀어내는 작업은 설레임을 주는 새로운 여행이 되어 주었다.



손다운 개인展

빈자리

일정: 2022. 07. 19-07.29

장소: 누벨백 미술관



빈자리

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한 공간을 자연에서 찾은 것이다. 자연은 이러한 나를 위해 비어 있고, 그 비워진 자연 속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모두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체이며, 이 자연은 변형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모습을 크게 부각하기보다는 작은 나를 화면에 배치하여 고요한 자연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닐기도 하고 자아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지며 아무런 방해없이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

재료/기법

작품에 보여지는 자연은 실제로 내가 경험했거나,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간 공간이다. 이 자연은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된다. 재료는 두께감이 있는 한지 종이에 호분과 물감을 섞어 사용한다. 산이나 숲은 점으로 찍어 멀리서 본 듯한 느낌을 주고, 가까이 있는 풀과 꽃들은 형태를 보여주되 선을 드러내지 않는다. 색감은 그때의 감정 분위기에 따라 고유의 색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보통 꿈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면 파스텔 톤의 색들을 자주 사용한다. 자연의 웅장함을 최대한 강조하고 싶어서 화면은 큰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점을 찍거나 작은 풀, 꽃 들을 그려내는 행위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실의 나를 시끄러운 주변과 잠시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소통

내가 작업하며 작품을 통해 얻는 여유로움을 관람자에게 공유하고 싶다. 나에게 휴식이나 나만의 공간이 필요 하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타인들도 저마다의 휴식과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작품을 감상하며, 이곳에 멈춰 그들 만의 생각에 잠기길 바란다.



진희란展

산로 山路

일정: 2022. 08. 18 - 08. 31

장소: 아트스페이스 퀄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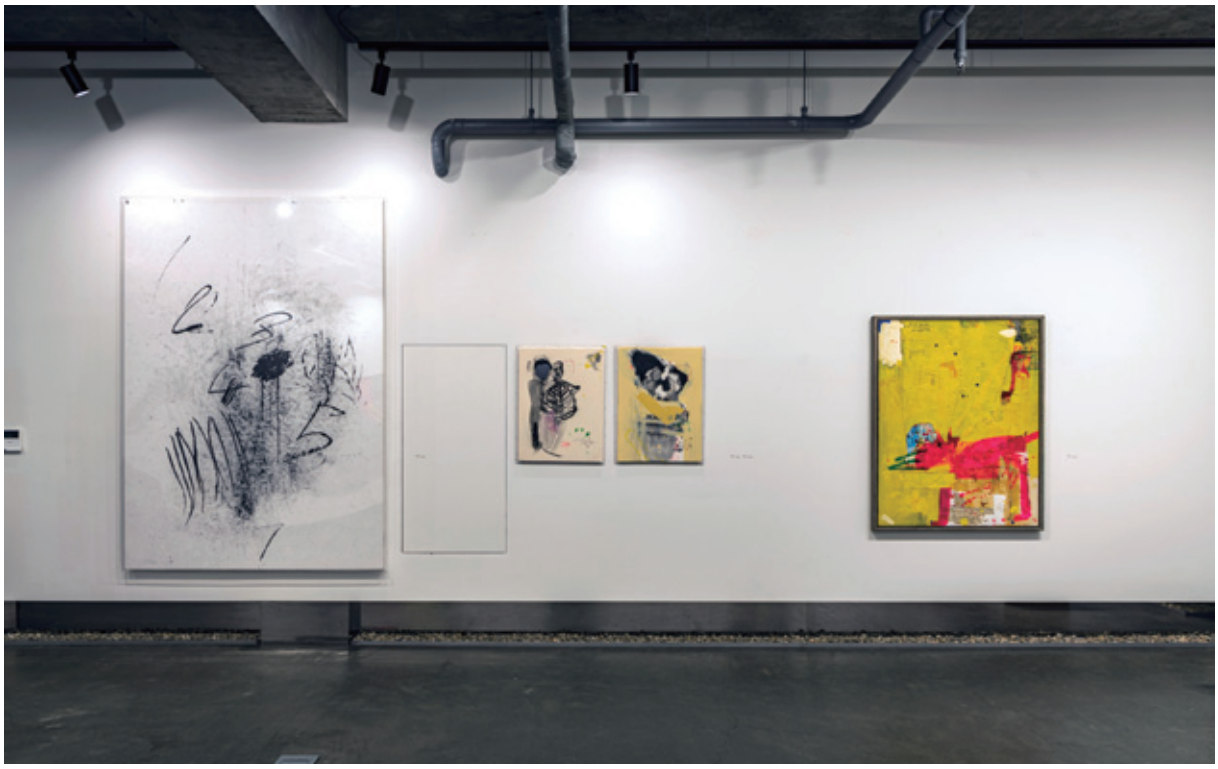
‘산로山路’는 여정에서 본 길이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눈을 감고 떠올린다.

잔잔하게 남은 여정의 기억은 길을 따라 심산心山을 만들고 아련함이 가득찬다. 그 아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안개 속 빛처럼 희미함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산로를 따라 국내의 산천을 산행하며 느낀 자연의 변천과 순리,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간 사람의 흔적과 세월을, 산수(심산)의 모습으로 빚어내어 다시금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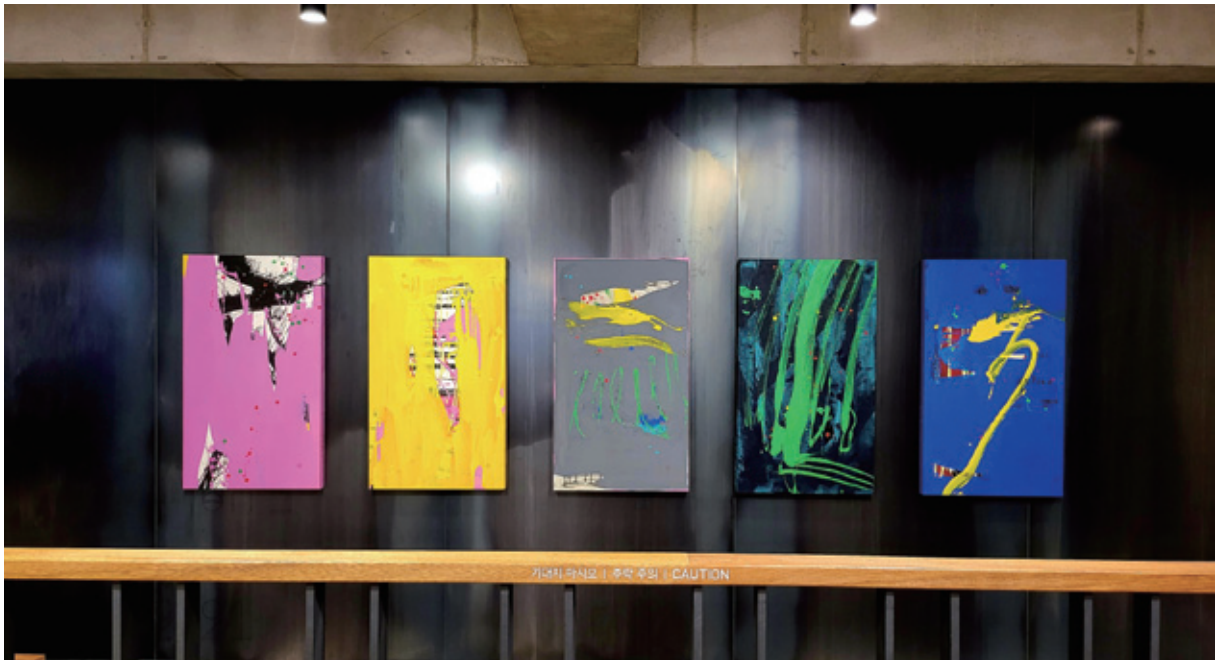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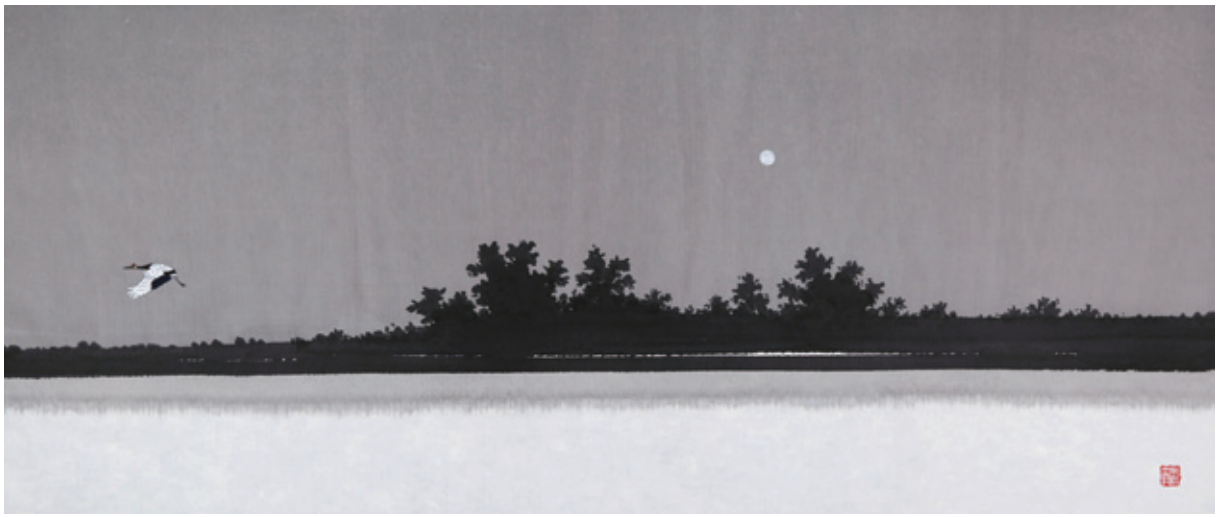


54회 권기철 개인展

일정: 2022. 08. 30 - 10. 30

장소: 앤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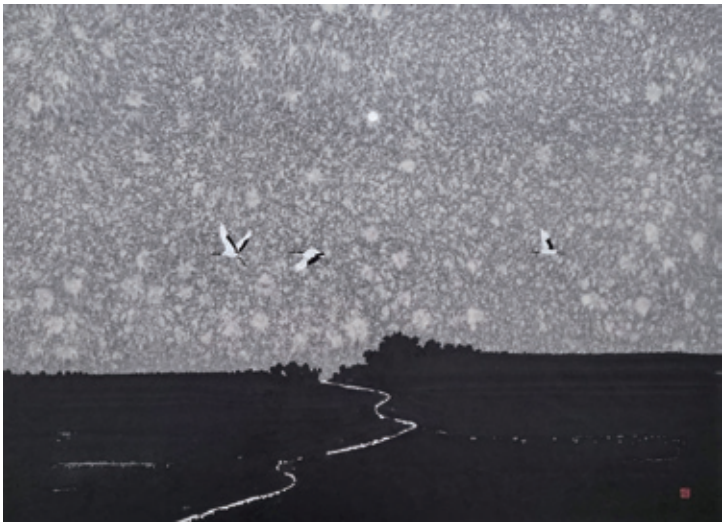
월하여정-2018 43X101Ccm 화선지에 수묵 2018

오송규 초대展

심상-소요(逍遙) 하다

일정: 2022. 10. 19 - 10. 30

장소: 콩세유미술관



심상-소요하다 20220825 85x114cm 화선지에 수묵 2022

수묵의 검고 깊은 먹색들과 부드러운 중, 담묵의 운용, 그리고 여백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대비와 조화는 화면에 나타나는 수묵의 번짐과 스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진 밤하늘의 공간과 어둠속에 단순한 형으로 나타나는 숲과 별빛에 빛나는 강물의 표정, 구부러진 길 들을 여백으로 처리함으로써 화면에 채움과 비움의 조형의 공간을 이루어내게 된다.

세상은 가시적인 부분과 가시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어둠은 가시를 비가시로 바꾼다. 나는 이런 비가시적인 심상의 공간이 좋다 이런 비가시는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나는 저 숲과 강에 살고 있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수많은 생명체을 상상하면 즐겁다. 그래서 만물이 드러나는 낮보다 모든게 덮어지는 밤이 좋다. 달과 별빛이 빛나는 저녁나절 숲속으로 나있는 길을 걸으며 무한한 심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 속에 새가 되기도 하고 별과 달이 되어 세상을 소요하는 꿈을 꾼다. 소요는 아무런 생각 없이 어슬렁거린다는 뜻으로 내가 자유롭다는 의식마저 없는 상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절대자유를 의미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환갑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의미 있는 삶을 꿈꿔봅니다.



피에타-윤대라 개인展

일정: 2022. 10. 25. - 11. 07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제 1, 2 전시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 후의 시간 속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 그를 통하여 구축된 지극히 개인적인 신화가 생경한 화면 속에서 보편적 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선사하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외', '연민', '공경'을 뜻하며 기독교 예술의 주제 중 하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으로 도상圖像화 되어 왔다.

그 경외와 연민의 대상을 작가는 자신이 시골의 삶에서 경험한 낱낱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생명-개, 고양이, 염소, 두꺼비, 닭 그리고 식물들, 즉 자신이 자리하고 살아가는 자연으로 삼아 많은 내러티브와 메타포가 담긴 도상을 창작해 낸다.

작가는 스스로 품은 상처와 자애慈愛/自愛를 성스럽게 도식화된 몽환적 도상에 화려한 색조의 진채眞彩로 담아내며 여러 종교의 이미지가 다층적으로 보이게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재하는 역사와 신화를 끌어내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를 지켜내고 살아가며 존엄하고 숭고하게 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성화聖畫에 다름 아니다.





박지예 개인展

일정: 2022. 11. 01 - 11. 08

장소: 누벨백 미술관









이호억 개인展

일정: 2022. 11. 03 - 12. 23

장소: 갤러리 조선

안과 밖은 현실 세계에서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시공(時空)이다. 작가는 '범람(氾濫)'하는 삶을 선언한다. 그가 문명 속에 도사리는 이분법의 관념을 분절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국과 식민지. 인간과 자연. 주류와 타자. 작가는 근대 국가의 탄생 과정과 같은 궤적을 그리는 제도의 폭력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의식의 실천으로서 제도를 의심하고 문명 밖 오지로 향한다.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말머리를 돌리는 역행을 감행한 것이다. 벼린 붓을 들고 전 국토의 산천을 찾아 헤맨 뒤에 종착한 곳은 자연의 밀도가 문명의 밀도를 능가하는 그의 고향이었다. 작가는 비로소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최지우 개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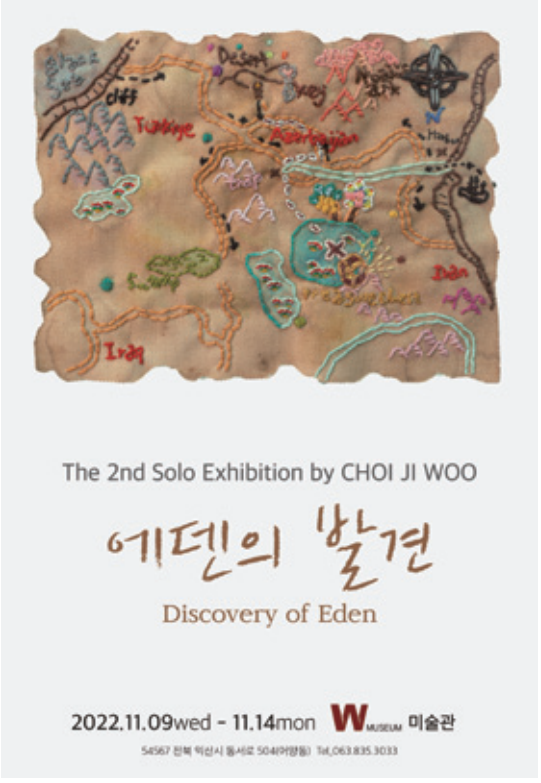
Discovery of Eden

일정: 22.11.09 - 11.14

장소: W미술관

‘행복’에 대한 메시지

에덴이라는 단어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천국, 또는 무릉도원같은 이상세계의 모습과
실제 공간이 함께하는 초현실주의적 장면을 통해
일상 속 발견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GS건설 갤러리시선 2인 공모 기획전展

일정: 2022. 02. 09 - 03. 02

장소: GS그랑서울 Tower2

전북회화회 참여작가:
이지희











전북회화회 참여작가:
김지연, 박종갑,
송지인, 윤대라,
이지희, 이철량,
진희란

담양아트위크2022

일정: 2022. 10. 28 - 11. 05

장소: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140명의 작가가 참여, 300여 점이 넘는 작품이 내걸리는 이번 행사는 현대 한국화, 현대미술, 사진, 공예, 독립책방과 영플레이어스, 판화 섹션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섹션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큐레이터들과 작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큐레이터·와 작가가 참여해, 행사 자체가 세대·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또한,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와 작가를 초청, 담양의 역사와 문화적, 인문학적 자산을 반영하고 특화시킨 전시기획의 형식을 띤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모색해온 현대 한국화 섹션은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종갑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획하에 동시대 주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서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Art Fair Asia Fukuoka 2022

일정: 2022. 09.30 - 10. 03

장소: 호텔 오쿠라 후쿠오카



afaf 2022는 큐슈, 나카시코큐, 오키나와 지역에서 유일한 아트페어로 제7회째 열리는 일본 현대미술의 저변확대에 노하우가 많은 아트페어다. 후쿠오카는 아시안 미술관과 시립미술관, 현립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관과 많은 갤러리들이 포진되어있다. 후쿠오카는 국제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30분 이내에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고 일본에서도 은퇴 후에도 가장 살고 싶어 하는 휴양과 관광도시이다.



오쿠라호텔 1층로비에 전시된 옆집여인

afaf 2022가 열리는 기간에 일본의 미술애호가들이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올해 Fukuoka Art Next를 추진하는 후쿠오카시와 공동 개최하는 afaf 2022를 통해서 본인 정체성에 주목했던 작업 '옆집 여인'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아시아의 작가들과 교감하고 일본 관람객들과 문화적 공감을 통해 예술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https://jejubiennale.org/

제주비엔날레 2022

일정: 2022. 11. 16 - 2023. 02 .12

장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및 제주일원

전북회화회 참여작가: 박종갑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16개국 55팀 참여 6개 전시장에서 총 16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박남희 예술감독은 "비엔날레를 통해 자연 공동체의 신화와 역사를 만들어온 양생(養生)의 땅 제주에서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생명 가능성을, 또 자연 공동체의 일부로서 인간의 존재 이야기를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연은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하며 그 삶의 모태로서 인간의 사유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는 자연이 만들어낸 수많은 형태의 돌들로 섬을 이루는 모양새다. 여러 생각을 채집하며 만난 제주의 바다 돌! 자연에서 잉태되어 시간여행을 통해 천변만화(千變萬化)하고 있는 돌의 형상들…. 그 억겁의 세월을 읽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제주에 내려와 바닷가 돌무지를 헤매듯 돌아다녔다. 돌과 돌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 그동안 작업의 화두로 잡아 두었던 '길 위의 인류'가 그 안에 서성인다. 나는 거대한 현무암으로 둘러쳐진 환영(幻影) 앞에 발길을 멈추어 서서 그 틈 사이로 열린 세상을 넘나들고 있었다. ■ 박종갑



ART BUSAN

일정: 2022. 05. 13 - 05. 15
장소: Bexco



한국·룩셈브르크 수교 60주년기념

박방영 화백 한국미술 전시

일정: 2022. 11. 05 - 11. 06
장소: 아크브지에문화센터
주최: 꼬레그라피협회한국본부
주관: Les Amis de la Corée
후원: 한식진흥원

2022 군산아트쇼



일정: 2022. 10. 07 -10. 10

장소: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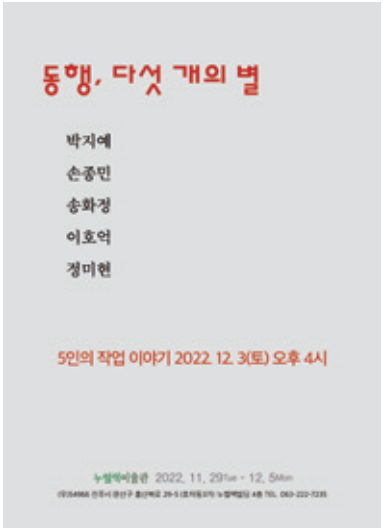
2022 군산아트쇼는 “예술이 나의 삶에서 빛나는 시간”이라는 구호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군산아트쇼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융합된 전시로 미술마켓으로 불린다. 총 170여 개 부스에 4,50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국내 250여 명이 작가, 관람객, 화랑, 컬렉터 등이 참여하였다. 특별전에 손석 작가, 최예태, 설경철, 찰스장 등 현대미술과 미디어 아트 이이남, 루딕 작가 등이 참여 26개의 기획전을 선보였다. 라이브 경매쇼에 배우 이광기가 진행하였고, 윤보형 변호사와 이소영 아트 메신저, 인플루언서 안현정 등 강연이 있었다. 개그맨이며 팝아트 작가로 활동하는 임혁필이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다.

현대미술이라는 점에 착안점이 있지만 수묵의 현대성과 전통성을 갖는 작품은 눈에 띄지 못했다 전통 매개체에 수묵과 채색을 가미한 몇몇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동행, 다섯 개의 별展

박지예 손종민 송화정 이호억 정미현

일정: 2022. 11. 29 - 12. 05

장소: 누벨백 미술관













특별기고

46 프리즈, 키아프 공동 개최…

49 같이해서 더 가치있는 미술 기행

50 '아트이슈 프로젝트' 전시장을 찾아서

52 21세기의 새로운 '비평적 지역주의'를 향해

54 코리안프리미티브(원시예술) - 박방영(朴芳永

이슈전시(기자의 눈)

프리즈, 키아프 공동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기자단 김인수

'아트페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개의 화랑이 한곳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 즉 '미술시장'을 뜻한다. 하지만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섰다.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현대미술의 흐름뿐만 아니라 미술계의 전망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한국 미술시장"

다양한 아트페어 가운데 영국 런던의 '프리즈(Frieze)', 프랑스 '피아크(FIAC, Foir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스위스 '아트 바젤(Art Basel)'이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불린다.

이 중 실험적인 현대미술 분야라는 차별화로 성장해온 프리즈가 서울에서 전시를 했다.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은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스터즈에 이어 프리즈에서 출범하는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아트페어다.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개막하여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함께 지난 9월 2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1 ▲ 왼쪽이 Damien Hirst의 작품이다. 프리즈 전시에서. © 50+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현대 작가들의 트렌드를 읽고 거장들의 작품도 여러 점 보고… 행복한 날을 2일 가졌다"

지난 3월 17일, SETEC에서 열렸던 2022 화랑미술제를 관람치 못해 아쉬웠는데, 이 가을에 무척 행복하다.

9월 초 열리는 아트페어가 Kiaf Seoul(코엑스 1층 A, B홀), Kiaf+(SETEC 전관), Frieze(코엑스 3층 C, D홀), The Artplace 2022(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6층)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수십여 개의 위성페어와 특별프로젝트들이 도처에서 펼쳐진다. 전시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다.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 마스터스(Frieze Masters) 섹션을 통해 고대 거장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포커스 아시아(Focus Asia) 섹션을 통해 신흥 작가와 갤러리들을 선보였다. 어릴 적 명절 때 받은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사진2 ▲ 관람객으로 보이지 않는 바닥에 누운 사람 그림이 자신의 그림자일까? 아니면 연인일까 궁금한 Francis Bacon 작품(왼쪽). © 50+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뷔페에선 골라 먹지 말자!"

'편식하지 말자!', '천천히 보자!'를 주문처럼 외우며 전시장에 들어섰다. Pre View인 9월 1일과 개막일 9월 2일. 이틀 동안 총 10시간, 5만 보를 걸었다. 한라산 왕복이 4만 5,000보로 기억한다. 그런데도 다 보지 못했다. 관람기 쓰는 지금도 엉덩이가 들썩인다. 왜냐하면 지인 인스타그램에 내가 보지 못한 작품 사진이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 작가들. 수백 년 넘게 사용해온

유화 물감과 캔버스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자 하는 중압감은 얼마나 클지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Cecily Brown, 그림을 보기만 해도 씩씩해질 거 같은 A.R. Penck 작품, 대형 작품만 보다 차돌같이 단단함을 건넨 배병우 작가의 작품, 베어서 난 자국 시리즈 '탈리'로 유명한 루치오 폰타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한 몬드리안, 마티스, George Condo, Georg Baselitz, Damien Hirst, 시간이 갈수록 고평가받는 윤형근 등의 작품을 봤다.



사진3 ▲ 복잡한 화면 속 곳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느라 눈을 뗄 수 없는 세실리 브라운 작가 작품.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문화학자 '에드워드 홀'은 개인의 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연인, 부부 사이처럼 45cm 미만의 접촉이 허용되는 밀접한 관계의 거리. 친구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처럼 45~120cm를 허용하는 관계의 거리. 인터뷰나 공식적인 만남과 같은 120~370cm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가 있고, 무대 위의 공연자와 관객 사이처럼 370cm를 초과하는 공적인 거리다.



사진4 ▲ 바늘 끝으로 철판에 그림을 그리는 한영욱 작가 작품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반경 1m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남의 침범을 막아내야 하는 거리다. 이 1m 안에는 기쁨, 행복, 사랑, 불행, 비극, 증오 등 여러 감정이 담겨 있다. 비행기도 타지 않고 세계적 작가의 작품 실물을 1m 미만의 거리에 두고 감상했다. 폐장 시간엔 관람객도 적어 오롯하게 있었다. 한마디로 행복했다.

"긴 시간 머물며 보고 감상한 작품"

조지 콘도(George Condo)의 신작 유화 'Red Portrait Composition(2022)'과 숯을 가루로 만들어 한국 전통 서예의 울림을 불러일으킨 숯의 화가 LEE BAE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사진5 ▲ 숯가루로 한 획 한 획 그린 Lee Bae 작가 작품.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꽤 머물러 있던 곳은 1890년 오스트리아 출생 에곤 쉴레(Egon Schiele) 부스다. 그림이 가식이 없고 너무 노골적이고 솔직해서 당황스러운 게 많다. 그럼에도 어떻게 저런 구도와 색상, 선의 느낌을 나타냈을까. 시대를 많이 앞서간 세련미와 스타일리시한 그림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사진6 ▲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작가 에곤 쉴레 작품들.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최근 추상화를 그리는 한국 작가들이 많아졌다. 작품의 깊이와 다양성도 확장되고 있다. 무엇이든 미술 재료로 활용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인 회화 재료인 유화 물감을 비롯해 나무, 돌, 동물, 달걀, 철판, 쇠 등 특히 바늘로 철판에 그림을 그리고, 비누로 도자기를 만들고 숯을 갈아서 그린 작품들이 새로웠다.

이 공간에서 마스크만 지우면 팬데믹 이전과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초청받은 VIP와 관람객이 많았던 아트페어다. 입장하기 위해 앞뒤 간격 없이 줄 선 일반 관람객, 유명 작품이 설치된 부스 안에서의 밀도 높은 사람들,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휴게 공간 부족 등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갤러리들이 출품한 미술품 실물을 봤다는 것 하나로 다 용서할 수 있다.

게다가 미술품을 담는 셔터 음에서 오랜만에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예전에 방문한 MOMA 미술관에서는 중형카메라임에도 거의 모든 작품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국내 아트페어에서는 'No Photo'가 많아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번 관람 아트페어에서는 어디에서도 제지받지 않고 자유로웠다.

"전시 관람 私談"

방문 전에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하면 좋다. 물론 갤러리 관계자에게 가볍게 질문을 해도 작품을 매입하라 하지 않으니 걱정은 마시라.

참고로 보통 아트페어에서 판매된 작품에 빨강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세계적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kiaf 서울, kiaf+에서는 볼 수 있었다.



사진7 ▲ 빨강 스티커가 전부 붙은 작가 작품들이 종종 보였다. 완판! 축하한다. 작가 이름을 잊었다.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문화생활, 여가 생활! 체력이 우선한다. 전시 관람은 체력이 필수다. 이번처럼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전시를 관람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가서 오래도록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기초체력을 단련하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하겠다.

관람객 패션, 복장이 멋지다. 유심히 보면 편한 신발이다. 오래도록 걷고 서 있어야 하기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관람객 모두 굽 없고 낮은 신발을 착용했다. 폼이 아니라 실용이다.



사진8 ▲ 관람객 전부가 편한 신발을 신었다.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근래 들어 한국인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장되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와 기관이 급증하는 등 미술시장이 역동적이다. 미술품에 대한 관세와 취득세가 없고, 젊은 컬렉터들 움직임도 매력적인 요소다. 금수저는 못 물려줘도 주식 한 장, 미술품 하나는 줄 수 있도록 용돈 모아 작품하나 사 볼까!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정은 없다.



사진9 ▲ 해마다 다양성과 깊이감이 확장되는 이은황 작가 작품. ⓒ 50+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같이해서 더 가치있는 미술 기행

정미현 (전북회화회 회원)

전북회화회에서는 2022년에 두 번의 미술기행을 다녀왔다.

첫 번째 4월 기행은 논산에서 작업중인 이호억 작가 탐방 및 다시 봄, 다시:봄 전시를 보고왔다. 산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호억 작가의 작업실은 자연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의 산실이었다. 또한 '바람의 언덕 갤러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호억 초대전'은 작업실에 본 느낌과 다른 느낌의 작품들 즉 일본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사생했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었다.

이후 '다시 봄,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연산문화창고'와 '돈암서원'을 찾았다. 창고로 버려지고, 과거의 문화유산으로만 존재했던 공간을 새로운 예술적 공간으로 변신한 훌륭한 전시공간 및 전시를 접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두 번째 9월 기행은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참여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 의미있는 하루의 미술 여행 일정이었다.

경기도 광주 영은 미술관에서 입주작가들의 개인 전시회를 관람한 뒤, 레지던시 창작 공간을 둘러보고 입주작가와 작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COEX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 KIFE SEOUL & FRKEZE 2022를 관람함으로써 현재 미술시장의 흐름과 미술동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미술기행이었다.







‘아트이슈 프로젝트’ 전시장을 찾아서

-2022년 주제: ‘동학 예술 프로젝트-동학 정신예술로 태어나다’-

강연주(아트이슈프로젝트 메니저)



아트이슈 프로젝트 전시장에서는 한 해 동안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작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아트이슈 프로젝트 전시장 한리안 대표는 대학에서 순수 미술(Fine Art)를 전공했지만 중국 북경중앙미술대학에서 동양미술사로 전향한 후 우연한 기회로 전시 기획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7년 중국 베이지 예술단지 789예술구, 2013년에는 대만에 ‘아트이슈프로젝트’ 갤러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며 3년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전주 출신 정진용 작가의 초청을 계기로 전주라는 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학 선정이유

동학을 주제로 이미 많은 전시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전시에서 혁명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술은 사실적인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미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미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대중이 동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동학이라는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동학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유명한 작가, 세계적인 작가가 아닌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사상을 말하는 예술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갤러리를 준비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고민했고, 그 답을 동학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학의 정신을 미학적이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동학 정신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프로젝트는 <이철량 개인전: 우주의 꽃>을 시작으로 <엄혁용 개인전: 사고하는 존재>, <정진용 개인전: 샹들리에> 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올해와 내년에는 동학 예술을 재조명 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전주 그리고 전북 지역의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전주에 방문한 관람객과 미술 작품 컬렉터와 해외 예술 애호가들의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전시를 개최하고 대중과 소통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평적 지역주의'를 향해

글 _ 이정우(임근준), 미술·디자인 이론/역사 연구자



picasso boisgeloup studio

특정 지역에 결부된 성취의 선례들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비평적 지역주의(ciritical regionalism)'는 그리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가 아니다. 사실 유럽이나 북미의 현대미술계에서도 대안적 지역주의는 대주제로 부상한 적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오베르-쉬르-와즈(Auvers-sur-Oise)에서 생을 마감한 빈센트 반 고흐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키즈 제도 아투오나(Atuona)에서 눈을 감은 폴 고갱의 경우를 봐도, 위대한 성취는 거의 언제나 특수한 지역과 결부됐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도,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조용히 작업하며 파리의 미술계에서 사실상 죽은 사람 취급을 받음으로써 더 위대한 성취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폴 세잔은 굶어죽을 걱정이 없는,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였다.) 이후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 모델을 변주했다. 대표적 인물이, 세잔의 족적을 그대로 역추적한 조르주 브라크였다.

1930년 6월 노르망디의 샤토드부아젤루프(Château de Boisgeloup)을 구입한 피카소도, 1931년부터 개조한 부아젤루프 저택의 스튜디오에서 조각 작업에 매진하며 적잖은 성취를 거둔 바 있었다. 1958년엔 세잔의 엑상프로방스와 생트빅투아르산과 가까운 보브나르그(Vauvenargues)에 성을 매입하고, 잠시 연인 프랑수아즈 질로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남불의 빛을 사랑했던 마티스도, 1917년의 첫 니스(Nice) 방문 이래, 여러 시기에 걸쳐 니스에 장기 체류했지만, 역시 가장 특기할만한 시기는, 나치를 피해 베니스의 '르 레브(Le Reve)'에 거주하던 1943-1948년 시기였다(종종 니스를 오갔다). 1939년 부인과 갈라선 마티스는, 조수 리디아 델렉토르스카야(Lydia Delectorskaya)에게 의지한 채, 1941년부터 아픈 몸으로 색종이 자르기 작업(papiers découpés, cut-outs)을 전개해 큰 성취를 거뒀는데, '르 레브'에서 만든 색종이 작업들과 니스의 저택, '오텔 레기나(Hôtel Régina)'에서 만든 작업들이 서로 꽤 달랐다. (대표작들은, 주로 니스에서 1950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잭슨 폴락은, 부인 리 크래즈너와 함께, 1945년 여름 이스트햄튼(East Hampton)의 스프링스로 이사해 거주하고 작업하며 큰 성취를 거뒀다. 잭슨 폴락과 리 크래즈너를 따라서, 여러 미술인과 화상이 그곳에 별장을 마련했는데, 뉴욕 사람들에겐 그곳이 미국 버전의 액상프로방스나 다름이 없었다.



An installation by the artist James Turrell

부유층이었던 헬렌 프랑켄텔러와 로버트 마더웰 부부도, 1945년 이스트햄튼에 땅을 샀고, 마더웰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피에르 샤로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1947년의 설계안으로 1948년 군대 막사처럼 생긴 효율적 작업실을 완성했다. (반면, 햄튼에 여름 작업실만을 뒀던 헬렌 프랑켄텔러는, 메사추세츠 프로빈스타운의 작업실에서 주로 작업했다.)

불법 이민자 화가였던 윌럼 드쿠닝은, 부인 일레인 드쿠닝과 함께 1953년 여름 처음 햄튼의 리오카스텔리 별장에 초대받은 뒤로, 미국 특유의 청교도 문화가 남아 있던 햄튼에 매력을 느꼈다. 1961년 이스트햄튼의 스프링스에 땅을 구매해 크게 집과 작업실을 짓고, 1963년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걸작이 탄생했다.

한데, 미국의 경우, 현대미술의 패권이 동부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LA 지역이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지역이나 시애틀과 워싱턴 지역의 미술가들은, 역사에서 홀대를 받는 시절이 있었고, 그건 이제야 차차 시정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왕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였음에도 사후에 이렇다할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시애틀과 워싱턴 지역의 게이 작가 마크 토비가 되겠다. 그는 1960년대 초반 연인 페르 할스텐과 함께, 스위스 바젤로 이주해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게티재단(Getty Foundation)은, LA 지역주의 미술의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2011-2012년 <퍼시픽 스탠다드 타임: LA의 미술 1945-1980(Pacific Standard Time: Art in L.A. 1945-1980)>이라는 대대적인 미술관들의 페스티벌을 실현하기도 했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의 '빛과 공간 운동(Light and Space Movement)' 등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201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사회주의리얼리즘을 교육받은 화가들이 구식 화풍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거나, 서독의 청년들이 라이프치히로 유학을 가거나 장기 거주하면서, 소위 신라이프치히화파(Neue Leipziger Schule)가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사실 맥락적 시발점은, 1977년의 제6회 카셀 도쿠멘타(documenta 6)에서 마련됐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의 기법을 활용하는 작가들을 구식라이프치리화파(Alte Leipziger Schule)로 호명하며 재조명했던 것이, 라이프치히의 화가들을 별도의 계보로 사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네오 라우흐(Neo Rauch)나, 서독에서 태어나 미국 칼아츠(CalArts: LA 지역주의 미술의 남상점)에서 공부한 크리스토프 루크해베를레(Christoph Ruckhäberle) 등은, 신라이프치히화파를 구 동독 지역 부흥의 상징으로 삼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한 독일 정부의 덕을 크게 보기도 했으니, 어떤 면으론
영국의 yBA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내용은 옆의 QR 코드를 통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안프리미티브(원시예술) - 박방영(朴芳永)

갤러리-BIKARA(일본) 아트 디렉터, 코리안 아트연구가 야기하시 요시오-(八木橋善雄)

● 프롤로그 - 시작의 미술

약1만8천년전의 라스코(동굴)나 알타미라의 동굴벽화는 그것이 가령 사진이었을지라도 관람하는 사람의 마음에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이 벽화는 그것을 그린 후기 구석기시대의 크로마뇽인들이 높은 지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현대인에게 (거칠게)들이대어 온다.동굴의 벽에 생생하게 그려진 동물들은 원초의 에너지에 차고 넘치고 있다.그것은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1만년전후의 미래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떨리게하는 것에 틀림없다.

현대의 인류는 과학기술technology 를급격하게 발달시켰다.다만 그 테크놀로지 technology 의 발달에 영성의 성장이 동반하고 있다고는 한정 지을 수 없다.역사상 끊이지 않는 전쟁이나 현대사회의 암부에 눈을 향해보면 그러한 의문이 끓어올라온다. 혹시 멀리 높은 테크놀로지를 가지는 미래적 존재가 현대인의 테크놀로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은 현대인으로부터 바라봤던 석기시대에 버금갈 것이다. 한편 [예술]은 어떤 동굴벽화처럼 시공을 넘어서 빛을 바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순수한 영성의 산물이기때문이다. 예술은 번쩍이는 영성의 빛인 것이다. 우리들이 미술작품으로부터 받는 감동은 그것을관람하는 인간의 영성과 작품에 내재해 있는 영성과의 공명(울림)에 의해 가져와진다. 결코 지적인 작업이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의식의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파동-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라스코(동굴)이나 알타미라의 벽화는 그것을 그림에 있어서 예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수렵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상상되어진다. 순수한 마음의 발로로서 생겨난 회화(그림)는 원초적(primitive)또한 무속(무술;샤머니즘)(shamanism)적인 에너지에 충만해있다. 그러한 미술이야말로 우리들의 심정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것을 자극하여 순화에로 인도하여 커다란 기쁨을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술작품에 내재되어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내적인 시점으로부터 박방영 예술을 응시하여 그 진수(참뜻)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코리안프리미티브(원시예술)

한국의 조선시대(1392년~1910년)에 특이한 미술이 있었다. [조선민화]이다. 민화는 꽃.새.산수.호랑이 등의 다양한 재료를 각각 양식화하여 그것을 장식하는 사람들의 리퀘스트(요구)에 응하여 [피사초복(사악한 것을 쫓고 행운을 불러들이는)]의 의미를 심어서 그렸다. 왕후나 귀족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넓게 친숙해졌었던 이 민화는 궁정화가나 프로화가가 제작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방랑화가인 초보화가들에 의해서도 양산되었다. 화법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그린 초보화가의 민화는 치졸(서투름)하지만 프리미티브(원시예술)한 맛이 있다.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있는 원초의 피를 끓어오르게하는 무속(무술;샤머니즘)(shamanism)적인 힘이 있다. 조형적으로는 역(반대)원근이나 여러 시점으로부터 그린 것도 있어 실제로 유니크하고 재미있다. 그것은 사고로부터 가져다주는 조형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여 갑자기 이 세상에 출현되었나라는 참신함(new)인 것이다. 당시 민화는 인테리어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림에 숨겨진 길상(행복.기쁨)을 구하는 소박한 기원이 있었다. 민화에 무속(무술;샤머니즘)(shamanism)적인 에너지가 내재하게 되면 그것이 요인이 아닌가라고생각되어진다.

아프리카 조각은 피카소의 큐비즘이나 브르통이 주창한 쉬르레알리슴(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민화도 현대의 한국의 화가들에게 조형적인 영향을 부여했다. 다만 박방영의 경우 민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민화에 내포되어있는 원초적 무속(무술;샤머니즘)(shamanism)적인 파동이 절로 그의 작품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박방영의 작품은 서양 회화(그림)와 동양의 [글씨]이라는 아카데믹한 미술의 토대이면서도 민화에서 통하는 프리미티브(원시예술)한맛이 있다.

그것은 주로 민족적인 피로부터 용솟음치는 충동에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바꿔 말하자면

박방영 자신이 샤먼적(주술적)인 소양이 있어서 스스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작품을 창출해낼 때 자신도모르게 그러한 에너지를 자신의 피 속에서 용솟음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 동양화의 기본 [글씨]

박방영은 대학에서는 추상의 유채화를 그렸고 대학원에서는 [난지도;nanjido]라고 하는 현대 아트의 그룹을 결성하여 인스타레이션 작품에 도전했다.그러나 박방영 예술의 원점은 그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던 [글씨]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한국 그리고 일본 에까지 전해졌던 수묵화를 시작으로 하는 전통 그림은 [선;line]의 예술이라고 말해진다. 동양의 그림은 부드러운 모필과 묵을 사용하여 종이 위에 자율적 그림의 선을 그려왔다. 모필에서 그려진 선은 그것을 조절하는 작



가의 기술이나 정신성을 여실히 반영한다. 수묵화에 매료된 피카소는 동양의 모필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이런 모필의 운필법의 기본은 [글씨]에 있고 그것은 모든 동양전통 그림의 기본이기도 한다. 그 선은 그냥 평면적인 띠(줄)가 아니고 구체(원형체)로부터원통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동양화의 선묘(디자인)에는 부드러운 면서도 힘이 있는 존재감이 있고 뒤에 이야기 하는 [기운생동]을 할 수 있다. 박방영은 그러한 글씨의 운필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숙련한 데다가 그 기법에 잡히지 않고 해방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대담한 선으로부터 섬세한 선까지 자유롭게 콘트롤하여 그릴 수 있지만 미로(현대 에스파니아의 화가) 등의 쉬르레알리스트(초현실주의자)들이 꾀하는 무의식에 인도되어진 오토마티스무적(자동기술)인 선묘(디자인)도 작품의 속에서 나타난다. 오토마티스무적(자동기술)인 선묘(디자인)는 치졸(조잡)한 기술로 그려진 민화에도 보여졌으나 민화의 대극(서로 다른 끝)에 있는 정통화의 수묵화나 문인화가 요구한 높은 정신성과 무위의 경지로부터도 생겨난다. [순진함]과 [숭고함]과는 통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 [기운생동]을 창출하는 박방영의 선(line)

자고이래 동양의 정통화인 수묵화나 글씨를 중요시 한 것은 중국에서 5세기에 謝嚇(사혁)이 설명한 [그림의 육법]에 나오는 [기운생동]이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기운생동이 없는 수묵화나 글씨는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나 기호에 불과하다. [기운생동]의 의미는 작품 속에 천지 즉 자연.만물.우주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모양으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기운생동을 작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파(분파)에 의한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작가의 정신성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고도한 기술로 표현되는 [기운생동]은 천지에 충만한 에너지인데 대하여 정반대의 치졸(미숙)하여 [프리미티브]한 미술에 있는 것은 인간의 피에 용솟음치는 원시적 에너지라고 하는 다름이 있지만, 영적 감동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여도 동질성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생각되어진다.

조선시대 말기의 한국에 추사.김정희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는 예서에 가까운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서체를 완성시켜 후세에 영향을 끼쳤다. 추사의 글씨는 모필을 마치 조각도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처럼 선묘(디자인)의 힘의 강함과 예리함이 있어 보는 사람에게 강한 임펙트를 부여한다. 그것은 확실히 기운생동하는 글씨이다. 한편 현대의 작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는 박방영의 글씨도 힘이 강하자만 예리한 추사의 글씨에 비교하면 선도 서체도 부드럽다.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 한정되지 않는 포용력이 있다. 그가 그리는 그림의 매력은 그의 선에 섞여져 빚어낸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보는 사람의 영성에 공명(울림)하여 기쁨을 가져다준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박방영은 기운생동의 원천인 천지(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내어 자신의 내면에 울리게 하여 작품 속에 풀어 버린다. 그때 그는 내면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은 민족성에 기인한 피에 잠재한 원시적 무속(무술;샤머니즘)(shamanism)적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혼연일체로 되어 작품에 나타내어져 그것에 보는 사람이 공명(울림)한 순간에 혼에끓어오르는 진동을 기억하는 것이다.

● 퍼포먼스

박방영은 퍼포먼스의 화가이기도 하다. 이명박대통령 주최 G20 리셉센(서울), 인천 아트플랫폼, 일본, 이탤리, 독일 등 수많은 그림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다. 거기서 전개된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람객의 눈을 꼼자짝 못하게 하여 서서히 작가의 리듬과 파동에 공감하여 간다. 그 결과로서 최후에는 한 장의 그림이 거기에 남아지게 된다. 그러나 퍼포먼스는 다만 쇼-는 아니다. 예술작품을 하나의 에너지체로서 본다면 퍼포먼스에 의해 그려진 그림에는 우선 작가의 심정을 축으로 하여 그 땅에 충만한 에너지를 끌여 들인다. 게다가 그 장소에 참가한 사람들의 심정적 에너지가 공명(울림)하여 (그들에게는 자각은 없지만) 그것이 작품에 끌어당겨 포함되어 있다. 즉 박방영의 퍼포먼스에 의해 그려진 그림은 그 장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제작물인 것이다. 이처럼 참가자의 공감이 다이렉트하게 작품에 반영하는 시점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박방영은 그 선두에 서서 미술의 미래를 끊고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

전북회화회 회원명단

권기철 김준근 김지연 박두리 박방영
박성수 박종갑 박지예 방정엽 손다운
손종민 송태정 송화정 오송규 유예빈
윤대라 이명자 이승훈 이우정 이지희
이진숙 이철량 이호억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정미현 진희란 최지우 최창봉

전북회화

2022년 통권 제29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송태정
편집위원 송태정, 정미현, 박두리,
임희성, 유예빈, 이지희
전북회화 2022년 통권 29호
발행일 2022. 12. 06

※ 본 전시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